

애월읍 어음1리, 1984.7.19, 김영돈, 김지홍 조사.
김승추, 남·76.

* 줄거리 : 마음씨 나쁜 계모가 있었다. 전처의 소생인 큰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자, 재산이 큰아들에게만 갈 것을 걱정하여 드디어 종을 시켜 첫날밤 신부집의 신방에 가서 홍보(紅褓)를 훔쳐오게 했다. 신랑은 이 사건에 놀라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신부는 결백을 밝히려고 집을 나섰고, 도중에서 어느 점장이 노파를 만나 신랑집을 알아내었다. 신랑집에선 신랑을 살리려고 밤낮 없이 굿을 하고 있었다. 남복 차림으로 그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에게 병의 연유를 그 점장이 노파에게 알아보도록 권하였다. 점쟁이는 계모방 상자속에 홍보가 있다고 알려 주었고, 시아버지는 이것을 찾아 신랑에게 보이니 병이 곧 나았다. 계모는 마침내 내쫓김을 당하였다. *

그 어머니는 돌아갔고, 아바지 잊고. 겨난 후처(後妻)를 정했지. 겨니 후처를 정훈디. 잇날 재산에 욕심해서 그런 일이라. 겨니 그 재산이 불써 큰 어명 난 아덜신디 상속하게 됐 거 아니요? [조사자 : 예.] 큰 각시에 난 아덜은 이제 장성하게 됐지 결혼하게 됐었지. 잇날은 대감 정도 됐지 종덜을 썻어.

이 족은각시가 큰어명은 죽어분디 큰아덜을 풀게 됐난. 족은어명이 아으덜 두어개 난 모냥이라. 청(妾)흔 늠의 각시 오니. 그 큰아덜이란 늠 살릴 수 웃다. 이거 죽여야 됐겠다고. 첨 독훈 늠의 여주지. 종늠이 천지 만진디(아주 많은데) 종늠은 무식하게. 일자무식(一字無識)하니. 종으로 보내서.

“너 가서.”

결혼은 거기 강 혼(混)자를 자는 거여. 잇날은 신랑이 가민 신부집의 혼(混)자를 자.

“가서 치매폭 혼(混)나 끂어 오라.”

치매폭을 끂어 오랜. 혼(混)니 종늠은 돈 멧냥 주겠다. 혼(混) 거라. 이 종늘이란 거란 거. 워년(워낙) 무식해서 안뒈메.

“예.”

간 신랑 신부가 가니. 그날밤 자요. 워년 법적으로 결혼한 날에 택일혼 날에 자요. 턱 간. 종늘이 강 지붕으로 확(놀라는 시늉을 하면서 벌떡 몸을 뒤로 젖히고),

“오오니.”

이거 겁이 날 거지게. 치매폭을 그 여주 눈 걸 확 거령오니. 붉은 치매폭이라. 그건 머 홍실 청실이란 거 잇는 거주게. 이젠 그 신랑이 겁날 거지게. 겁이 나고 해서. 머 두레¹⁾ 됐어 불엇어. 좀 이건 아마도 근본 남편이 잇어서 그걸 뺏어간 거다고.

1) 정신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바보스러운 사람을 가리킴. 여기서는 魂이 나가 버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쓰임.

“이년.”

호명 해 가난. 건 텔 거여게? 경 뛰어 노난 일이 안뭔거 아니오?

이제는 일가의서 모이난. 다덜 골으멍,

“뜰림 옷이 간보(奸夫)를 두었다. 간보를 두지 아니해시민 어디 그런 일이 잇겠느냐?”

고, 영덜 호니. 그 처녀가 말호기를,

“그러민 나가 올레²⁾ 베꼈다. 규중처녀(閨中處女)라고 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잇어요? 쪼끔 춤아 주소. 나가 머이요? 혼돌에 계획을 못 세우며는 나가 죽을 거요.”

이제 혼돌간은 계획을 못 세우며는 주기 죽나고. 뜩 주기 어머니보고, 아메도(아무래도) 어머니 주식 스랑호여. 돈 서른냥, 서른냥이 잇날돈 무겁주게. 돈 지언 특 가. 이건 어딘처례³⁾도 몰르고, 막 맹기는 거라. 경해도 주기 신랑집이 어디라 혼 건 알았거든게. 그건 수실이 그럴 거 아니요?

그딜 향해영으네 가는디. 아 점쟁이가 호나 잇어. 할망 점쟁이가 췌고점을 잘호는 할망이라. 아, 그늠의 점깝(점값)이 돈이 열냥이라. 아이고 서른냥 ?전 가니. 열냥을 주어 불엇어. 애애, 그 여준 죽을 거. 무신말호여게.⁴⁾ 점꽈(占卦)가 나오는디. 북변(北邊)의 유과전(有瓜田)호니 문기과주인(問其果主人)호라. 북변굿디 웨왓(외밭)이 셔. 그뜻을 그 과주인안티 들으라. 그 과수원호는 하르방안티 물으라 단지 것만. 그점은 열냥이랏어. 그때 돈 열냥이민 지금 혼 백만원만이 갈 거라.

이젠 북쪽더레 으상으상⁵⁾ 이늠의 처녀가, 아이지. 남펜광 누엇던 거난. 그 여자가 그레 갓어. 보니 웨앗이 셔. 웨왓디 간 뜩 물으니, 웨 호나 사먹고. 그때 웨 열매나 비싸게. 상당이 비싼주게. 아, 그러더니 어디서 굿, 소리가 당당호게 나. 웨왓 임재보고,

“저굿은 누게 흡니까?”

“곧지마소. 이 모을에 짐대감 아덜 장개갓당으네. 어떤 능이 들어간 확호게 치마폭 ?정 가부난, 겁난 신경벵으로 두레가 뛰어 불언 저영 햄소.”

“아, 이젠 알았수다.”

고, 춤 그늠의 할망 점쟁이 상당호여. 웨 호나 먹고, 그 하르방신디.

“고맙수다.”

고 해놓고. 강 이젠 남복(男服), 여자가 아니고 신랑집의 들어가젠 남복으로 출렷어. 남복으로 출려 가지고, 그집의 굿호니 들어갔어. 게난

“거머, 넘어가는 소님(손님)인디 굿구경 왓는디. 아 어쩐일이오?”

굿은 들구호여. 그러니,

“그거, 여기 주인영감은 누게십니까?”

2) 거릿길에서 대부분이나 또는 집안쪽으로 나 있는 진입로이며, 보통 골목처럼 약간 좁고 길게 되어 있음.

3) 어딘줄 또는 어딘지의 뜻임.

4) 곧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므로 점값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겠느냐는 의미임.

5) 힘이 없이 걷는 모습 또는 아무 할 일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임. 여기서는 앞의 뜻으로 쓰였음.

씨아방이지 알고 보민.

“당신은 어떤 사름이요?”

흐곤덴(하길래),

“예. 저는 지금 넘어가는 사름이우다마는 이굿을 무사합니다.”

“에고, 근지 마소. 어떻게 어떻게 해보단. 요거 묻지 마소.”

흐연. 경흐연 가난.

“영감, 나말 좀 들어 보소.”

메누리주게. 그 메누리 몰를 거난, 남복 출련 입어시난.

“요디 남쪽 알녁(아래녁)으로 가당 보민. 할망점쟁이가 싫수다. 워년 점을 잘흐는디. 그디나 훈번 가 바요. 가서 점흐고. 그 점흐민 이 빙(病)의 연율(緣由를) 알 거우다.”

아. 이젠 이늠의 하르방이 불문곡직(不問曲直) 듣는 거라. 그디 점흐레. 그 곡절을 고사(姑捨)하고 듣는 거여. 뜩 갓어. 점을 흐난 그 점꽈가. 가중(家中)에 유옥루(有玉樓)흐다. 상중(箱中)에 심홍포(審紅襍)흐라. 집 가운데 옥루가 있다. 옥다락. 다락에 강 바구리 가운데 그 포를 촛이라. 아. 이거 단지 이렇거든.

이 하르방이 왓어. 굿은 당당당다흐는디. 불문은 곡지(곡직)하고 그 곡절랑 내불어두고. 그 옥룬 족은각시 사는 디주게. 간 이젠 궤(櫃) 뒤져가난. 할망이.

“무사 궤 뒤져 보는 것이냐?”

고. 보난 붉은포가 그 쏘곱에 셔(잇어.) 그거 경흐난 불복(不服)흐여져게? 이젠 딱 ो져 오난. 그 여조가 그 남펜 죽어가는 남펜신디 갓어. 탁

“이거 느거 아이냐?”

흐난 확 깨나. 이 정신을 돌려논 거라. 그때 붉은 포 확 빼어 가난 겁다락 난 그 혼을 잃어 불인 거난.

“이거 붉은 포 나와시니 너 일어나라.”

팔딱 일어난. 완전. 이젠 그 하르방이.

“아, 이거 인상 식상이 안뒈겠다.”

고, 거 점잖은 집안이난 전부 축출시켜 불언. 내쪼차 불언. 그런 여조가 집안의 들민 집이 망흐는 거주게.